

경허·만공 친필 최초 공개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26~31일, 조계사 나무갤러리

한국불교 증흥조 경허 스님의 열반 100주년을 기념해 스님과 제자 만공 스님의 친필이 첫 공개된다.

경허선사 열반100주년 기념사업회(주진위원장 지운, 수석사 주지)는 3월 14일 수송동 모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불교 증흥조 경허선사 열반100주년 기념 선서화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3월 26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1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경허 스님을 존경하는 선서화가 70여 명이 참여해 <반야심경> 등 경전 글씨, 달마도 등 선화, 한지그림, 연화도반, 다란 등 250여 점을 선보인다.

수석사성보박물관장 정암 스님은 "전시회에서는 경허·만공 스님과 역대 총림 방장스님 등 고승의 친필, 종정예하 회호, 선사화승의 친필과 선화, 재가불자선서화가의 글씨와 선화, 재가불자의 도예·목공예·불상 등 분야 영역을 가리지 않고 출품된다"고 말했다.

최초로 공개되는 경허 스님의 친필은 심우도 10폭 병풍 가운데, 스님이 직접 글을 쓴 6폭 작품이다. 그림을 그린 작가는 알 수 없다. 또, 무이당 당호를 적은 편역도 있다.

만공 스님의 친필은 경허성우선사법문



경허 스님의 친필이 담긴 심우도 10폭 병풍 가운데 6폭 병풍. 그림은 작가 미상

10폭을 병풍에 담은 작품이다.

경봉·탄허·구하·석주·송산 스님 등 고승과 서용 스님(고불총림 방장), 월하 스님(영축총림 방장), 원담 스님(덕숭총림 방장) 등 역대총림 방장스님의 친필도 전시된다.

전시에서는 경허 스님의 법손인 조계종 새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의 친필회호도 만날 수 있다.

현존 한국 최고의 불화장가이자 선화가인 석정 스님과 경허·만공·원담 스님의 법을 이은 선승이자 선필인 현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의 작품 총 40여 점이 선보이는 특별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해인·지안·기현·종림·성각·원학·현고·법관·원진·귀일·

상봉·범주·금강·선진·영담·회상 스님 등이 출품해 경허 스님을 기린다.

효당 최범술·김지하·김양수·김영택·박정희·한창교·강종원·변관식·우재길·소공거사·심음섭·함윤희·차수진·전연호·안우섭·능인향당 등 제자 자도 대거 출품됐다.

기념사업회추진위원장 지운 스님은 "경허 선사는 승에도 속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어떤 지식에도 자유로웠다. 일체 모든 것에서 벗어난 자유인·무애인·대려보 살이었다"라며 "경허선사 열반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준비하는 제반의 추모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장을 여는 선서화전에 사부대중의 수회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나에게



마음은 깊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고,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눈빛은 늘 아침 같았으면 좋겠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부는 많이 안 됐어도 게으르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할 수 없고, 힘든 고백 뒤에 부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는 게 힘들어도 '나'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힘들어도 나의 '자리'는 변함없었으면 좋겠다. 잠든 모습은 절 마당 같았으면 좋겠고, 지나간 하루는 절 마당을 지나간 나무 그림자 같았으면 좋겠다.

옛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날이 저물어도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침이 와도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독백으로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고, 힘든 고백 뒤에 부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는 게 힘들어도 '나'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힘들어도 나의 '자리'는 변함없었으면 좋겠다. 잠든 모습은 절 마당 같았으면 좋겠고, 지나간 하루는 절 마당을 지나간 나무 그림자 같았으면 좋겠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불화佛畵에 나타난 복을 비는 마음

국립중앙박물관, '삼성각의 불화' 8월 26일까지

본래 불교는 스스로 수행 정진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에 넓은 포용력으로 각종 토착 신앙을 받아들여 불교의 세계를 넓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와 사정에 맞게 가르침을 설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우리나라 각지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성각과 그 안에 모셔진 칠성도(七星圖), 독성도(獨聖圖), 산신도(山神圖)는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토착화되면서 민간 신앙을 반영한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주로 절 뒤편에 작은 전각을 마련해 나누어 봉안할 경우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 등으로, 모두를 봉안할 경우 삼성각(三聖閣)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복을 비는 마음-삼성각三聖閣의 불화'라는 주

제로 8월 26일까지 전시회를 연다. 이번 교제전시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칠성도, 독성도, 산신도를 중심으로 해 삼성각의 불화와 그 의미에 대해 소개했다.

전시는 북극성을 상징하는 치성광여래와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칠성여래 등 불교와 별자리 신앙의 결합을 보여주는 칠성도로 시작한다.

또한 신통력이 크고 소원을 신속히 성취해준다고 믿어져 중요한 기복의 대상이 된 불교 성자 가운데 하나인 독성도 5점이 전시된다. 이 밖에 산신 신앙이 불교와 결합해 그려진 산신도가 소개된다. 산신도는 신령한 노인이 호랑이를 거느린, 민간신앙적인 산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들 역시 해석적인 분



산신도 山神圖(19~20세기), 견본채색, 109.5 x 81.0cm, 국립중앙박물관

위기를 가진 민화풍의 호랑이와 시종드는 동자를 거느린 산신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02)2077-9000 이너은 기자

한국의 선시각상 조선 상월쇄봉 선사의 '생각을 씬 [書懷]'

내가 어리석어 경계에 꼬달리네

道無私我我常私 (도무사아이상사) 도는 내게 사사로움이 없는데 내가 늘 사사로움
境不痴人人自痴 (경불치인인자치) 경계는 사람을 미혹시키지 않는데 사람이 스스로 어리석네.
冥合八風俱靜處 (명합팔풍구정처) 팔풍이 모두 고요한 곳에 깊이 부합해야 사
可爲三界獨尊師 (가위삼계독존사) 가히 삼계의 독존사라 할 수 있으리.

은 내 위주로 생각하는, 나의 사사로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경계도 마찬가지다. 경계가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마는 내가 어리석고 미혹하여 경계에 꼬달리고 환경에 지배 받는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의미 없는, 무의미한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는 나에게 와서 의미 있는 꽃이 되었다는 표현이 바로 스님이 말하고

1200여 문도가 모여들 정도의 화엄강회(華嚴講會)를 열기도 했던 조선 상월쇄봉(霜月璽笄; 1687~1767)스님이 평소 품었던 생각을 시로 풀어 놓았다.

도라는 것은 나라서, 너라서, 잘나서, 못나서라는 사사로움이 없다. 저 <신심명>에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을 꺼려할 뿐"이라고 한 간택하는 것이 바로 사사로움 것이다. 친소를 분별하고 우열을 가리는 모든 것

자 하는 도리에 다름 아니다. 이 경계를 가운데 스님은 특히 팔풍(八風, 즉 이(利), 쇠(衰), 휘(毀), 예(譽), 칭(稱), 기(譏), 고(苦), 락(樂)을 들었다. 이로 움과 손해, 험뜰음과 명성, 칭찬과 비난, 괴로움과 즐거움은 우리를 둘러싼, 우리 마음이 가장 쉽게 흔들리는 양쪽의 경계들이다. 이 팔풍이 다 쉬어진 자리, 어떠한 경계에도 매몰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경지이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 한 의미이며 부처님이라 부르는 이유다.

수많은 경계에 수많은 수도도 흔들려 올고 웃는 지금의 나는 사사로움과 욕심으로 가려진 어리석음이 있기 때 문임을 이 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원법 스님(운문사 강강·조계종 교수사리)



원법 스님(운문사 강강·조계종 교수사리)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로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신중명화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동간격·규격상조
설치가 편리한 고려형 후크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크리스탈 인등
고추구 12B 인지구 26E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A/S 빠른 전선 10년 불해해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채르 되어 화재의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8)

노랑, 진분홍, 백색, 인분홍
▶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영사용) 탈필이 방식

노랑, 진분홍, 백색, 인분홍
▶ 아주 빠른 건전지 초 (LED)
▶ 평생, 탐들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